

SK, 환경보전 노하우 적극 홍보

ENVEX 2004 최대규모 참가 ... 매연저감장치 및 촉매기술 전시

SK(대표 신현철)가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KOEX)에서 열리는 제26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 2004)에 참가해 SK의 환경보호 노력과 환경기술의 우수함을 적극 알리고 있다.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등이 후원하는 ENVEX 2004는 SK 등 국내 환경기술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기업 약 230사가 참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SK는 참가기업 중 최대 규모의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팬터마임을 이용한 환경보호 메시지 전달, 환경 관련 퀴즈대회 개최 등 신선한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한편, 전시부스를 단순한 판넬이 아닌 영상시연 위주로 진행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붙잡을 계획이다.



SK가 개발한 내부식하수관을 둘러보고 있는 광결호 환경부 장관(왼쪽)과 SK 신현철 사장(오른쪽)

특히, 6월14일에는 광결호 환경부 장관이 SK 전시부스를 찾아 SK가 독자개발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질소산화물 제거용 선택적 환원촉매(SCR 촉매), 냄새저감기술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SK 안전환경경영팀 조중래 상무는 "SK가 환경친화기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보전 노하우 및 자체 개발한 환경관련 기술을 상업화하는 단계로 진입했고 자체 평가했다."

SK는 1993년 <안전환경방침>을 선언하고 <환경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회사의 환경경영 성과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으며, 환경기술 관련 R&D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각종 환경촉매 등을 국산화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15>